

19세기 초학교재에 나타난 아동교육관의 특징

최 종 찬*

<目次>

- | | |
|----------------------|-----------------------|
| I. 서론 | 2. 19세기 아동교육관의 변화와 특징 |
| II. 본론 | III. 결론 |
| 1. 성리학 기반의 전통적 아동교육관 | |

<국문 초록>

고려 말 유입된 성리학은 새로운 국가체제를 형성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지배계층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정치, 문화, 외교 등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성리학적 질서는 교육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태교부터 시작하여 성인으로 성장하는 일련의 교육과정 속에 일관된 철학적 기준을 제시해주었다.

조선사회는 장차 성인으로 성장하여 가족과 사회를 발전시킬 아동들의 교육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오랜 세월을 걸쳐 이루어진 교육 체계는 매우 정교하고 철저한 단계를 거치도록 구안되었다.

15, 16세기에 아동들의 교육용 교재로 사용되었던 이러한 책들의 내용은 대부분 성리학적 사고와 세계관을 기를 수 있는 옛 선인들의 문장을 중심으로 편찬되어 있었다. 이것은 아직 아동을 가족의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성리학적 틀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게 되었다. 흔히 실학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시도들은 기존 사회구조의 모순과 비합

* 용인 백현중학교 교사 / ebe8769@hanmail.net

리성을 지적하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시하였는데 교육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시대의 초학 교재는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매우 방대하면서도 다양한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 실학자들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의 교류를 통해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인식할 수 있었고, 기존의 성리학적 틀에 얽매인 초학 교재를 과감히 벗어나서 새로운 형식과 내용, 그리고 민족적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소재를 통해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가며 교육의 혁신과 아동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였던 자주적인 움직임이 한 시대 이전에 있었음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주제어】 初學教材, 童蒙, 兒童教育觀, 性理學, 實學, 張混, 丁若鏞, 中人 知識人

I. 서론

教育立國이란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왔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경이적으로 비쳐지는 외적인 성장 속에는 수많은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동의 발달 단계를 무시하고 너무 주입식 몰입교육으로 치닫기도 하고, 다양한 경쟁체제 속에서 수많은 아동들은 점차 의욕을 상실하여 수많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개혁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관용어에 따르면 현대 우리나라 교육의 난맥상은 조선후기의 교육적 혼란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을 정도로 두 시대는 많은 부분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성리학적

질서에 유지되었던 조선사회는 서서히 그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고, 인재 등용의 유일한 통로였던 과거 시험은 모든 응시자를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관문이 좁았다. 각종 입시 부정, 고액 과외, 비효율적인 학습방법은 두 시대를 아우르는 공통의 難題이다.

조선후기에는 그러한 교육의 난맥상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실학자와 증인층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으며 비록 제도적으로 그들의 의견이 수렴되지는 못했지만 이후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아동의 관심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새로운 교재의 제작도 활발하였는데 이는 개화기 이후 수많은 아동 교재의 출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학교재란 주로 8~15세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四書를 배우기 이전에 사용하던 준비기의 교재를 말한다. 조선 시대의 초학교재는 크게 천자문류의 문자 교재와 소학류의 교양교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전 시대에 간행된 아동 교재의 성과 위에 시대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교재가 편찬되었다.

특히 아동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정서적으로 성인으로 가기 전의 미숙하고 불완전한 상태가 아닌,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하며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성인의 기준이 아닌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19세기에는 중국 초학교재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진 교재에 대한 열망이 높았던 시기이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다양한 계층의 학자와 교육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바라보고 기대했던 교육의 모습이 무엇이며, 기존 성리학적 세계관에서의 아동교육관에 비해 가지게 되는 차이점을 초학교재의 분석을 통해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성리학 기반의 전통적 아동교육관

고려 말 유입된 성리학은 외래학문으로 처음부터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체제를 형성하면서 성리학의 기본 생활지침인 삼강오륜과 충효사상 등의 실천 유학적 특징이 사회통합을 위해 받아들여지면서 지배계층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정치, 문화, 외교 등 조선 사회 전반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성리학적 질서는 교육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태교부터 시작하여 성인으로 성장하는 일련의 교육과정 속에 일관된 철학적 기준을 제시해주었다.

조선 초기는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나갈 뛰어난 인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성리학적 세계관을 통해 특유의 전형적인 인재관, 교육관이 형성되었다. 과거제는 이러한 인재 등용의 국가적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으며 자연스레 향교, 四學, 성균관 등의 관학과 서당, 서원 등 사학의 전형적인 교육체계가 정립되면서 성리학적 인간상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성리학적 교육관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교육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君子學이다. 즉 聖人の 삶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하는 것이 학문의 최대 목적이 되었다. 공자는 군자가 아닌 자들이 정권을 잡아 일반 백성들을 억압하고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탈피하여 위정자가 백성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면서 제자들에게 도학적인 면을 강조하였는데,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사상이 담긴 텍스트가 기본 교육 교재로 채택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적 목표가 되었다.¹⁾

조선시대 아동을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는 동몽(童蒙)이다. 동몽이라고 하면 8세부터 15세 전후까지 아직 관례를 올리지 않은 아동을 가리켰다고 할 수 있다. 전근대 시기에는 아동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 동몽이었고 동몽은 곧 학령을 의미하였으므로 아동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학습에 있었다.²⁾

부모와 가족, 친척 및 스승이 아동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본받기를 원했으며 아동은 이러한 행동 속에서 仁의 실천 양상을 지켜보고 그대로 따르며 실천하였다.

사람이 태어나서 집안에 어진 부형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친구가 없으면서도 성취할 수 있는 자는 드물다.³⁾

이렇듯 조선사회는 장차 성인으로 성장하여 가족을, 사회를 발전시킬 아동들의 교육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오랜 세월을 걸쳐 이루어진 교육 체계는 매우 정교하고 철저한 단계를 거치도록 구안되었다. 아동이 처음 천자문을 배우게 될 때 친척이나 인근의 학자들로부터 한 자씩 글씨를 받아 책으로 엮던 풍습은 이러한 예비 사회구성원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단계별 학습 및 그에 따른 교재는 다음과 같다.

학문의 입문기인 8~9세에는 초보과정인 천자문, 유합, 훈몽자회를 활용하였고 이후 10세 무렵에는 기초과정으로 童蒙須知, 童子習, 小學, 孝經 등을 배웠다. 이후 학문의 본격과정에 들어서면서 四書五經, 百家 등

1) 그러나 성리학에서 중시하던 도학적인 측면은 과거급제라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목표와 상충되는 점으로 성리학적 아동교육관이 가지고 있었던 내부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다.

2) 심경호. 「전근대 시기의 아동관과 아동의 문학」, 『창비어린이』 5, 창작과비평사, 2007.

3) 『小學』, 『善行』 第六, “人生內無賢父兄 外無嚴師友而能成者 少矣.”

을 통해 가치관과 학문의 틀을 완성하였다.

이렇듯 아동을 위한 교재는 비교적 다양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유입되거나 영향을 받은 서적이 많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천자문으로 이 책은 한문 학습의 입문서로 널리 활용되었다. 최세진도 『訓蒙字繪引』에서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千字文을 마치고類습을 읽힌 다음 다른 책을 가르친다고 하였다. 이렇게千字文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자 입문서로 쓰여졌으며 草書, 篆書로 쓰여진 것까지 포함한다면千字文 刊印本과 寫本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⁴⁾

15, 16세기에 학동들의 교육용 교재로 사용되었던 이러한 책들의 내용은 대부분 성리학적 사고와 세계관을 기를 수 있는 옛 선인들의 문장을 중심으로 편찬되어 있었다. 조선후기의 이른바 실학자로 손꼽는 분들이 편찬한 서적도 대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 아동을 가족의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⁵⁾

성리학적 관점에서 아동은 성인으로 성장하기 이전의 미완성된 객체로 인식되었다. 아동을 예쁘게 여기고 사랑으로 양육하였지만 그와는 별개로 교육에 있어서는 가정과 사회의 규범을 지켜야 하고 출세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힐 것만을 강조하여 강요한 면이 많았다.

피교육자인 아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어진 과제와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현실에 와 닿지 않는 옛 선조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글, 또한 우리 역사가 아닌 중국의 역사는 현실감을 잃어 교육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줄 뿐이었다. 여기에 갈수록 가중되는 경쟁체제는 과연 도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글을 배우는 것인지, 입신양명하기 위해 글을 배우는 것인지, 즉 삶의 가치에 대한 질문에 회의를 줄 수밖에 없었다.

4) 안미경, 『千字文 刊印本 研究』, 이회, 2005, p.19.

5) 심경호, 앞의 논문. 참조.

2. 19세기 아동교육관의 변화와 특징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성리학적 틀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게 되었다. 흔히 실학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시도들은 기존 사회구조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시하였는데 교육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마치 조선 초기에 사림파들이 기존의 사회질서를 새롭게 진작시키기 위해 교육개혁의 기치를 내세웠던 것과 맥락이 같은 것이다.

실학자 및 재야지식인들에 의한 일련의 교육 개혁의 의지는 아동교육관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부터가 아닌, 밑에서 부터의 개혁이 진행된 것은 그들의 방대한 지식과 유연한 사고에서 기인한다. 성리학적 질서에 의해 유지된 조선사회가 내재된 모순과 불만을 해결해주지 못하였으며 사회의 구성원들은 각각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받지 못한 채 제시된 원칙만을 준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또한 기존의 질서체계에서 신분의 제약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그들의 질박함과 아쉬움이 교육 의지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즉 시스템의 한계로 인하여 뛰어난 능력과 재주를 지녔으며 과거라는 유일무이한 등용문의 기회를 얻지 않고서는 자신의 이상을 펼 수 없었으며 신분의 제약이 있었던 중인층의 재야지식인들과 서얼층의 실학자들은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의 교육의 목적이 성인과 군자를 닮기 위한 성인학, 군자학에만 머물러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 당장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재의 출판을 도래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고사와 역사, 문화의 동경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던 과거의 교재에서, 우리 주변의 일화, 신화, 지리, 풍속 등을 통해 우

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교육적인 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19세기에 간행된 몽학교재 7종 대부분에 이러한 자주적인 민족의식이 담겨있다.

아동교육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 역시 이전 시대와는 선을 긋는 유의미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게 된다.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객체의 모습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주체로서, 교육의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변하게 된다.

1) 19세기 초학 교재의 종류와 특징

15~17세기 아동들이 본격적으로 한문에 입문하기 전에 기초과정으로 접했던 교재는 千字文, 類合, 訓蒙字會 등이었다. 이후 배우게 되는 교재는 蒙學東鑑, 擊蒙要訣, 小學, 士小節 등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전래한 것이었거나 내용과 체제를 차용하여 각색한 것이 많았다.

한문학습의 입문서로 가장 널리 활용되었던 것은 천자문이었다. 한자문화의 도입과 더불어 전해진 천자문은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왕세자의 교육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서당을 통한 교육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더욱 확산된 천자문은 16세기에 40건 판각되었고 18세기에는 59건이 판각되는 등 일반화, 대중화의 속도가 가중되었다.⁶⁾ 그러나 그럴수록 천자문의 문자 학습서로서의 부적합성이 계속 대두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웠던 점은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천자문을 대체하는 우리나라 풍토에 알맞은 교재의 제작을 시도하게 한 이유가 되었다.

최세진은 천자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은 『訓蒙字會引』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6) 이에 대해서 안미경, 앞의 책, pp.30-31. 참조.

세상에서 아동에게 글을 가르치는 집은 반드시 千字文을 시작으로 類合에 이른 뒤에 비로소 여러 책들을 읽힌다. 千字文은 梁의 周興嗣가 편찬한 것인데 고사를 취하여 배열하여 문장을 만든 것은 좋은 점이다. 그러나 아동의 학습에 있어서 겨우 글자를 배울 수 밖에 없을 따름이니 어찌 고사와 속문의 뜻을 다 알 수 있겠는가? 비록 千字文과 類合을 배우고 經史의 諸書에 이른다 하더라도 다만 글자는 알아도 그에 해당하는 사물은 알지 못할 것이다.⁷⁾

이처럼 천자문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많은 학자들은 천자문이 맹목적으로 아동 수업에 金科玉條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고 訓蒙字會, 類合 등의 간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정약용의 兒學篇 등이 나오기 전까지 중국의 체제와 내용을 완벽하게 벗어나면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재의 출현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었다.

성리학적 질서에 의해 공고하게 유지되던 조선사회는 양난을 거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게 된다. 기존의 성리학적 가치관의 테두리 안에서 조금씩 분출되던 다양한 욕구가 새로운 사회 현상과 맞물려 표출되기에 이르렀으며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교육 분야는 당시 사회의 큰 담론이었던 실학의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다양한 교육 개혁 방안이 모색되었는데 아동의 특수성에 관심을 가지며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초학교재들이 발간되어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저술되거나 간행된 다양한 교재들은 이전 중국의 영향으로 간행되었던 소학류의 교재나 천자문류의 교재와 큰 차이를 가진다.

7) 崔世珍, 『訓蒙字會引』, “臣竊見世之教童幼學書之家 必先千字 次及類合然後始讀諸書矣 千字梁祖散騎常侍周興嗣所撰也 摘取故事 排比爲文 則善矣 其在童穉之習 僅得學字而已 安能識察故事屬文之義乎..雖習千字類合 以至讀遍經史諸書 只解其字不解其物”

구분	서명	저자	내용
천자문류	兒學篇 (1800년대 초)	정약용	인륜, 천문, 지리, 박물
	蒙諭篇(1810)	장훈	천자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어휘집.
	正蒙類語(1884)	이승희	종래의 『천자문』을 대신해 아동기의 교육내용을 새롭게 체계화시켜 제시
	蒙語類訓(1888)	이승희	
	蒙學史要(1868)	김용묵	四字體의 천자문의 형식. 二千字의 한자로 中國과 우리나라의 歷史를 간추림
백과사전류	兒戲原覽(1803)	장훈	고급의 사문(事文) 가운데 아이들이 찾아보아야 할 내용을 열 가지 주제로 정리
	近取篇(1810)	장훈	네 글자로 된 속담과 고사숙어 1046개, 세 글자로 된 고사숙어 98개, 두 글자로 된 속어 192개
	啓蒙篇(1810)	장훈	首篇, 天篇, 址篇, 物篇, 人篇으로 구성. 장절(章節)이 비교적 짝막하여 초학자의 句讀, 文義 해득에 용이
문해류	發蒙篇(1808)	朴載哲	學業, 五倫, 奇話 등
	初學文(1877)	許傳	人道, 形貌, 天道, 飲食, 衣服, 農業, 宮室, 人性 등
	蒙語(1888)	郭鍾錫	
	儒學經緯(1896)	申箕善	理氣, 天地形體, 人道, 學術, 宇宙述贊
소학류	海東續小學 (1884)	박재형	인륜, 제왕, 입정, 성학, 명도 고종(高宗) 21년(1884년)에 박재형(朴在馨)이라는 선비가 쓴 일종의 교과서.
	童蒙宜學(1899)	趙鍾灝	조선 말기의 문인. 야곡(冶谷) 조극선(趙克善)의 후손으로,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찬술

<표 1> 19세기 간행된 초학 교재 목록

특히 아동의 교재 편찬에서 중국 일변도의 것을 배제하고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었으며, 소학류의 수신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담은 교재의 출판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19세기 초학교재는 백과사전식 체제, 기존 소학체제의 변용, 천자문류의 체제, 문해류(文解類) 등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많은 시도는 보다 효율적인 내용과 체제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많은 계층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세기의 아동 교육관의 추이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초학 교재인 兒學篇과 兒戲原覽을 통해 시대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아학편(兒學篇)

兒學篇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이 강진에 유배되었던 시기에 제작한 아동용 문자 교육 교재이다. 두 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각각 1,000자로 한정하여 형태가 있는 물건을 다룬 상권과 物情, 事情을 다룬 하권으로 구성하여 천자문처럼 여덟 글자마다 1개씩의 운을 달아놓았다.

그는 비효율적이면서 우리나라 문화 풍토와 맞지 않는 천자문이 오랜 기간 동안 아동 교육의 전범이 되어 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는데 『千文評』에서 다음과 같이 천자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天地를 배웠으면 日月, 星辰, 山川, 丘陵에 이르러야 하건만 그 종류를 다하지도 않았는데 우선 네가 배운 것을 잠시 내려놓고 五色을 배우라고 하니 이것이 무슨 법인가? 玄黃을 배웠으면 靑赤, 黑白, 紅紫, 緋綠에 이르러야 하건만 그 차이를 구별하기도 전에 네가 배운 것을 잠시 내려놓고 宇宙를 배우라고 하니 이것이 무슨 법인가?⁸⁾

그는 천자문이 운자를 이용하여 만들어져 앞뒤 맥락이 맞지 않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학습면에서 비효율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측류방통(觸類旁通), 즉 종류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8) 丁若鏞, 『與猶堂全書』, 「千文評」, “學天地字及日月星辰山川丘陵 未竭其族而捨之 曰 姑捨汝所學而學五色 此何法也 學玄黃字 及靑赤黑白紅紫緋綠 未別其異 捨之 曰姑捨汝所學而學宇宙字 此何法也..”

방식을 취하여 아학편을 저술하였다.

아학편은 크게 形, 情, 事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로 비슷한 개념어를 族으로 묶어서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글자를 알면 다른 글자의 의미까지 미루어 짐작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것은 이전의 어떤 교재에서도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이며 창의적인 방식이다.

구분	유형/ 무형	류(類)	족(族)	내용	글자수
上卷	有形	形	天倫	天地父母 君臣夫婦 兄弟男女 姊妹娣嫂 祖宗子孫 姪姑甥舅 姨姪婿媳 妻妾媵姆 伯仲叔季 族戚朋友 賓師主客 翁媪童叟	48
			人類	帝王后妃 將相卿士 吏民工商 僮僕奴婢 儒俠醫巫 氓隸妓娼 僧尼盜賊 夷狄蠻貊	32
			身體	耳目口鼻 股肱手足 頭腦額項 顴頰頂額 齒牙脣舌 眼睛頤齶 乳脇臍肚 胸背腰腹 指爪掌腕 肩臂肘腋 跗趾臚踵 臀膝脛脚 鬚眉鬢髮 咽喉臟腑 心肺肝脾 膽腎腸肚 皮肉膏血 筋脈骨髓 涎汗糞溺 首面身體	80
			天文	日月星辰 風雲雨露 霜雪霰霾 雷電霞霧 虹霓颯颯 霖涑霰霖 陰陽氣暈 彗孛冰雹	32
			地理	水火土石 山川海陸 原野丘陵 峰巒岡麓 嶺嶽峽岨 洞壑巖谷 隴阪崖岸 塵埃塊礫 泉瀑溪澗 溝渠陂池 江淮河漢 湖澤津涯 灘潭島嶼 浦渚汀洲 潮汐波浪 泥沙泡瀉	64
			都邑	國邑卿鄉 郡縣州都 隣里市井 城郭村閭 街巷蹊徑 道路橋驛 田畦園圃 境界阡陌	32
			金寶	金銀銅鐵 鍤鉛鐵錫 珠玉寶貝 錢幣圭璧	16
			火	炬燎燈燭 薪柴炭灰 硝硫烽燧 燦焰烟煤	16
			花草	草木禾穀 菜蔬花藥 芝蘭蕙菖 蓼朮芎芎 蒲艾蓬蒿 茅莎蘆荻 荼蓼薇蕨 蓮荷薔菊 葵藿芹薺 茄芋薯蕷	40

구분	유형/ 무형	류(類)	족(族)	내용	글자수
上卷	有形	形	菜蔬	菘菁芥苣 韭菘葱薑 瓜瓠菌蕈 萹苳蒜蕘 葡萄藤葛 芭蕉藍茜	24
			樹木	松柏檜杉 梧桐梓柰 榆槐楊柳 椶櫚榛栗 檀樅椒桂 梅杏桃李	24
			果實	柿棗梨楸 橘柚柑枳 榴櫻柰 楓楮棗棠	16
			植物 (부분)	桑柘柞槩 竹筴笋篔 樹林菓蕈 根荻材幹 枝葉莖節 藜萆薹蔓	24
			禾穀	黍稷稻粱 菽荳牟麥 紵麻泉棉 蕎秫秬粟 苗穉秧粒 糠米稗糧 秬糯芻稿 稗稗莠莠	32
			麟鳥	鸞鳳鶴鶴 鴻雁鳧鴨 鷗鷺鵝鶩 鷓鴣鳩鴿 鷓鴣鵲鴉 鳶鷹烏鵲 鳩鵲鸚鵡 鷄雉鸞雀	32
			獸畜	麟麋窟鹿 虎豹象犀 兕獬貂鼯 豺狼狐狸 馬牛羊豕 駒犢羔豚 驢騾犬羆 貓鼠熊猿	32
			與介	蛟龍鯨鱉 魴鯉條鱖 鯉鱸鮪鱈 鯪鯖鮓鱧 鮑鰾魴鮓 鮑鰾鰾鮓 龜鼈蟹蟻 蝸蠃蠓蛤	32
			昆蟲	蜂蟻蝴蝶 蜻蜓蟋蟀 蠶蛾蠅蟬 蛛蠅蚊蝮 蠅蟻蛇蝮 蚜蛭螢蚤 蛆蠹蚤蝨 蚋蠅蠓蠚	32
			動物 (부분)	禽畜犧牲 鳥獸魚蟲 雛鷓鵠卵 牝牡雌雄 羽毛鱗甲 鬣尾蹄角 翼翮喙喙 坳牢巢殼	32
			室居	宮室殿闕 舍宇家宅 臺榭亭館 寺院樓閣 房堂屋廊 府庫倉廩 棟梁柱椽 檐臺梯檻 窗牖門戶 閨榭相闕 廚竈廢厠 階庭牆壁 苑囿廬店 礎堦瓦甃 鎖鑰釘鈴 垣籬簾榻 庋架牀榻 屏帷帳幕 壇廟碑塔 塚墓棺槨	80
			舟船	舟船舶筏 棹楫帆檣 舳舻篙篷 舫舵鱣根	16
			車輿	車輦軒輶 輪軸轂輻 輻輳蓋傘 鞍轡羈勒	16
			生活用品	紙筆墨硯 簡策版牘 符璽印牌 碁枰毬簿	16
器皿	器皿几案 榼椀椅桌 瓶罍甌甗 鼎鍋釜鑊 盆甌楩椀 簋銅栝罇 鐘鉢剡勺 匙筯俎盤 箱篋筥籠 筐奩櫃櫥 篋篋篩籬 箕帚囊橐 杵臼紫缸 扇爐氈席 升俞斗斛 衡錘杖尺 鉞斧鋸鑿 錐刀椎鎌 機梭戛軒 碓礪磨砧 鉏鉞犁鋤 耒耜耒耜 矰丸笏箝 網罟餌鉤	96			

구분	유형/ 무형	류(類)	속(族)	내용	글자수
上卷	有形	形	軍裝	弓矢弩箭 干戈劍戟 旗纛旌旄 鞭棍鞮屨	16
			布帛	布帛錦繡 紗羅綾縠 經緯綵紋 絲纈條索	16
			服飾	衣服冠帶 襦袴裘衫 袍襖裙裳 袂袖裾衿 靴屨鞮屐 襪襪膝襪 鎧冑囊笠 綾經帽笏 紳鞶綦纓 縫緣裔幅 巾悅珥佩 衾裯枕褥 釵笄鏡鑷 髻鬢梳篦 鍼線膠糊 粉黛麝脂	64
			飲食	飲食肴膳 飯餅糜粥 酒醴醪麵 菽醬羹臠 脯醢腊鱸 膾炙飴蜜 醋齋油鹽 豉糟麴漿	32
			音樂	鐘鼓磬管 簫笛琴瑟	8
下卷	無形	情/事	人倫	仁義禮智 孝悌忠信 慈良敦睦 寬和恭慎 是非善惡 吉凶悔吝 聖賢睿哲 英傑豪俊	32
			時間	春夏秋冬 歲時早晚 寒暑溫涼 晴暄澇旱 晝夜晨昏 曉晡朝夕 昨翌期晷 旬望晦朔	32
			空間	東西南北 左右前後 上下中間 登降仰俯 邊隅房側 內外表裏 彼此處所 往來行止	32
			色彩	青皇赤黑 朱玄素白 丹紺蒼翠 紅紫綠碧	16
			感覺	酸鹹甘苦 辛辣羶腥 臭味馨色 嗅啗視聽 音響芳香 光彩形影 唱嘯吹彈 舞蹈歌詠 睨窺眺望 顧瞻觀省 吞吐噓吸 飢飽醉醒 聾聵聵聵 聞見聰察	56
			動作	寤寐睡夢 戲笑喧聒 歎咄瞋瞬 涕淚啼哭 鼾啞嚙呻 噴嚏唾衄 拳掬拱抱 握執扶持 擡學捫搔 攀捧提携 探摘擁挾 招搖掩揮 披捲投擲 拘攣掛垂 跬步蹤跡 踴躍踐踏 超越踰踞 跋蹇蹶踰 坐臥起居 倚伏跪立 顛倒進退 趨走拜揖	88
			言語	言語問答 論議談說 教誘訓誨 招呼請謁 計謀許諾 古戒詢訪 謗訕譏嘲 叱罵欺誑	32
			疾病	疾病痛癢 瘡癘痔疽 癩痢疔瘡 癰羅疔疔 痺拘腫脹 痰嗽咳喘 痘疹瘡癰 疣痣疥癬	32
敬弔事	婚姻嫁娶 胎孕產育 葬埋祭祀 餞餉宴樂 慶弔賀慰 會遇盟約	24			

구분	유형/ 무형	류(類)	족(族)	내용	글자수
下卷	無形	情/事	生業	灑掃應對 盥漱沐浴 稼穡耕種 耘耨樵汲 賣買賒貸 質販賭贖 鑄鍊斲剖 採拔捕捉 紡織繅染 澣濯制裁 春簸浙漉 烹飪蒸炊 醞釀斟酌 酬酌饋餉 貢獻贈賜 求乞報償	72
			學藝	文武技藝 射御書數 史傳詩詞 章句箋註 篆字圖畫 卜筮律曆 講讀吟誦 學習記錄	32
			武藝	軍旅營陣 攻守戰伐 兵刃擊刺 騎乘馳突	16
			制度	財貨賦稅 債價傭雇 負戴轉運 辨訟券簿 爵祿官位 法度刑政 權威勢力 制作命令 姓氏名號 倫序班列	40
			獨立語	功罪黜陟 寵辱賞罰 人物性情 古今事理 治亂得失 可否成毀 生死禍福 安危存亡 盛衰窮達 利害災祥 尊卑貴賤 壽夭貧富 愚慧邪正 老少壯幼 廉貪奢儉 妍媸強弱 抑揚殺活 勝敗順逆 大小長短 輕重厚薄 清濁高低 方圓曲直 廣狹銳鈍 硬軟肥瘠 有無虛實 疏密斷續 剛柔屈伸 冷熱燥濕 淺深濃淡 融凍滑澁 精粗汗潔 完缺純雜 浮沈隱現 開閉出入 聚散動靜 從違離合 明暗通塞 遲速緩急 去留用捨 榮枯贏縮 真假優劣 加減損益 縱橫遠近 敬整平仄 難易煩閒 專貳詳略 翻覆弛張 稀稠泄蓄 多寡盈虧 增刪溢涸 洪纖巨細 紛紜異同	208
類似語	變化周旋 新舊始終 蒼蔚叢茂 槁萎摧折 凝滯堙鬱 滲漏潰決 照耀焚燒 灌沃熄滅 豐好秀美 尖碎破裂 堅固侈麗 朽腐壞落 騰翥飛鳴 潛藏遁匿 充滿汎濫 空匱竭盡 放逸奔逃 回還歸反 繫結牽曳 游泳解脫 壅蔽阻隔 恢拓爽豁 端壯默訥 頑傲夸誕 謙遜愿淳 爭鬪猛悍 懶惰嬉娛 敏捷勸勉 荒淫驕妄 貞淑舒坦	120			

구분	유형/ 무형	류(類)	족(族)	내용	글자수
下卷	無形	情/事	心理	勞倦催促 休息玩弄 孤獨單微 伴侶群衆 追隨交接 送迎逢別 譏譽恩怨 辭受子奪 志意思想 知識覺悟 喜怒哀歡 愛憎恃懼 愉悅欣快 愁恨憂慮 慙愧羞恥 悚畏恐怖 慟悼憐恤 悵戀羨慕 誠僞敬怠 勇怯忿怒 狂暴酷毒 謹嚴弘裕 恬雅惠諒 驚疑猜妬	96
			數理	一三四五 五六七八 九十百千 萬億雙匹 尋丈分寸 毫釐芒忽 奇偶幾倍 積累兩鎰	32
			修養	吾我爾汝 勤孜奮發 沿派源流 揣揆本末 保養德質 修飾才能 模楷型範 規矩準繩 堯舜禹湯 孔孟顏曾	40

<표 2> 兒學篇의 族 분류⁹⁾

상편은 30개의 항목으로, 하편은 1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종류별 한자를 학습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천자문을 학습하면서 겪었던 실생활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해소될 수 있었다.

다산의 아학편이 주목받는 이유는 철저하게 아동의 입장에 서서 그 인지적인 발달과정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기 때문이다. 평소 독서를 좋아하였고 자녀들에게도 독서를 중시하였던 다산은 기존의 한자 교육 서들이 비효율적으로 한자를 배치하거나 아동들에게 와 닿지 않는 생경한 내용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여겼으며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음을 개선하려는 실학적 관점 또한 아학편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

9) 홍신기, 「「아학편」에 나타난 아동을 위한 문자교육관과 아동용 문자교육 교재로서의 시사점 탐색」, 『韓國教育論壇』 제8권 제2호, 2009.

아학편의 저작 원리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단순한 반복학습과 천자문 식의 암기 교육을 지양하였다. 천자문의 경우 ‘天地玄黃, 宇宙弘黃’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시작하여 맹목적으로 4글자의 구절을 암기하는 다소 단순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체제를 차용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안한 것이다.

둘째, 글자 수를 적절히 조절하여 아동들이 학습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되 전체적인 분량은 천자문의 두 배로 설정하여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즉 上卷에는 물체가 있는 한자를 배치하였고 下卷에는 사람의 마음이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한자를 배치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셋째, 구성에 있어서 유의어, 대립어 등 아동들이 암기하면서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정리하면 아학편(兒學篇)은 오랜 세월동안 기초 한자 교육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천자문을 통해 자칫 아동들이 중화사상에 경도되는 면을 경계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아동의 발달 과정에 따른 과학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구안하여 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고루 발달시키고자 한 다산의 교육 철학을 엿볼 수 있어 19세기를 대표하는 초학교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② 아희원람(兒戲原覽)

兒戲原覽은 조선시대 후기인 1800년대 초에 간행된 張混(1775-1828)의 동몽 교육서이다. 장혼은 중인 출신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19세기의 뛰어난 교육 이론가이자 저술가로 이름을 남긴 사람이다. 순조 시대나 그 이전의 초학교재 16종¹⁰⁾중에서 그의 저작물이 1/4이나 차지할

10)千字文, 類合, 訓蒙字會, 童子習, 童蒙先習, 註解千字文, 新增類合, 明心寶鑑, 三字經, 初學者訓增輯, 童蒙須知, 增註三字經, 兒戲原覽, 近取篇, 蒙諭篇, 啓蒙篇

정도로 활발한 집필활동을 벌였다.

그는 兒戲原覽의 서문을 통해 저작 동기와 체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평소에 (어린 학동들의 학문하는 자세가) 화려한 것만 많고 실속이 없는 것을 걱정하여 고급의 사실과 글 중에서 전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모으고자 하였다. 여러 사상가들의 저술을 모으고 온갖 책을 수집하며 새겨진 기록을 참조하고 보고들은 것을 참고하되 쓸데없는 것은 삭제하고 중요한 것만 요약하여 분야별로 모은 뒤 열람하여 간추렸더니 모두 수천만 개의 말로, 열 개의 조목이 되었다.¹¹⁾

兒戲原覽은 머리말과 10장의 본문, 그리고 2개의 부록과 補遺편으로 모두 총 13장 528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기존의 동몽 교재와는 성격을 달리하여 백과사전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차례		내용	항목 수
머리말	引		
제1장	形氣	자연현상, 만물의 변화 생성	24
제2장	創始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135
제3장	邦都	우리나라의 역사 및 관직, 고을 명, 거리	22
제4장	國俗	우리나라의 다양한 민속문화의 유래	13
제5장	誕育	중국과 우리나라 인물의 기이한 탄생	26
제6장	姿性	사람 및 동물과 관련된 모양, 성품	64
제7장	才敏	재주가 있거나 영민한 사람 소개	24
제8장	壽富	인간의 수명과 재산의 풍요로움	38
제9장	變異	기상이변 등의 여러 기이한 일	36
제10장	傳運	역대 왕조의 왕통 계승(중국 중심)	23

11) 張混, 『兒戲原覽』, “余常病其多華小實 要粹古今事文可以譚據者 蒐諸家 摭群書 詢剗剗 資聞見 冗刻而紀約 彙分而閱簡 總數于萬言 條爲十則”

차례		내용	항목 수
부록 및 보유	附 東國	우리나라의 역사 및 역대 왕조	10
	附 數彙	숫자로 이루어지는 단어 정리	109
	補遺	공자를 비롯한 130명의 문묘 배향자 명단 등	4
계			528

<표 3> 兒戲原覽의 구성

장훈은 어려서부터 영특함을 보였으나 집안이 매우 가난하였고 중인의 신분으로는 학문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안 부친에 의해 서당 교육마저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 한문을 접하게 되었는데 한 번 보면 모두 외울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다.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17세 무렵부터 학동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20세 이후에는 부갓집에 기숙하면서 글을 가르쳤다.

32세 때인 1790년(정조 14년)에 재상인 吳載純의 추천으로 규장각 監印所의 司準(원고 교정직)을 맡게 되는데 이후 25년간 수많은 서적의 간행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천수경(千壽慶), 김낙서(金洛瑞) 등 위향 문인들과 함께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핵심인물로 참여하면서 1797년 『풍요속선(風謠續選)』을 편집하여 간행하기도 하였다.

아동 교육에 오랫동안 참여하였고 監印所의 司準으로서의 오랜 경력, 그리고 중인층과의 교류를 통해서 조선 후기의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는 교육을 통한 변혁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장훈은 자신의 호인 而已廣을 딴 而已廣 活字를 통해 兒戲原覽을 비롯하여 近取篇, 蒙幼篇, 啓蒙篇 등 많은 아동 교재를 제작하였다. 특히 아희원람은 천문과 지리, 역사, 인물 등을 단어별로 나열하여 설명하는 일종의 백과사전 형식을 지니고 있어 지식의 폭을 넓히고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점 때문에 兒戲原覽을 동몽교재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반 교양서나 사전류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兒戲原覽이 이후 서당 등을 통해 조선말까지 한자 학습의 교재로 활발하게 활용되었고 그 내용 역시 여러 문헌에 수록된 것 중에서 교육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대상으로 삼았기에 아동의 초학교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에 큰 무리는 없다.

兒戲原覽의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아동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존의 교재들에 비해 도덕적이고 교화적인 내용이 많이 약화되어 있으며 대신 백과사전식의 구성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적 특징은 당시 중인층의 유연하고 생활에 밀착된 사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다른 교재에서는 금기시하는 비합리적이거나 우화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특히 이인기행(異人奇行)이나 변이(變異), 奇蹟(기적) 등의 내용이 엿보여 일반 평민들이 믿거나 삶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들을 교재 속에 담은 것으로, 생활 교과서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문화나 역사를 탈피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국속(國俗), 민속(民俗)을 활발하게 소개하고 있다. 중국에서 유래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고유의 독자적이면서 훌륭한 문화도 비교적 균형된 시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兒戲原覽과 蒙幼篇, 啓蒙篇 등 일련의 그의 저작물이 위계적이면서 단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했다. 즉 兒戲原覽과 蒙幼篇을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감각기능에 의해 경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소재를 먼저 접하게 하였고 啓蒙篇을 통해서는 현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19세기에는 종래 성리학자들에 의해 제작되었던 교재의 특징, 즉 교화중심적인 특징을 벗어나고 생활 밀착형의 소재와 민족적 자부심을 기를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새로운 교재가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2) 아동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에 영향을 미친 것은 유학이다. 삼국 시대 이래로 우리나라에 전래된 도교와 불교가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송나라의 유학인 성리학이 유입되면서 유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규범이 되었다. 처음에 성리학은 외래 학문으로 일반 백성들의 생활과의 관련성은 많지 않았으나 새로운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사상적인 통일을 원하던 지배계층의 논리와 맞아떨어지면서 더욱 공고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아동교육 역시 성리학적 가치관에서 결정되게 되었다.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강조하는 아동교육의 모습은 태교를 포함한 조기교육, 연령과 성별을 통한 단계별 교육, 효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중심 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성리학적 관점에서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며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성숙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며 20세 전후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성숙된 인격체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아동 교재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幼, 兒, 小兒, 童蒙 등의 용어는 이러한 인식의 틀을 보여준다.

성리학적 관점에서 학문의 목적은 聖人을 닮기 위한 것으로, 아동기는 인격적, 정서적으로 그러한 준비를 행하는 시기였다. 당연히 아동기만의 특수한 상황을 인식하고 개개의 인격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상적인 모습만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불합리한 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신분제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였던 조선 시대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아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분을 넘을 수

없었고 학문은 그저 자기만족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8세기부터 조선 사회에 불기 시작한 실학의 바람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사회분야에 변혁을 이루었고 특히 아동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성인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능력과 재주에 따라 각기 다양한 존재 이유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홍대용(洪大容:1731-1783)은 그의 저서인 담헌서(澹軒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재능과 학식만 있으면 비록 농민과 상인의 아들이라도 중앙정부에 앉는 것이 외람된 일이 되지 않으며, 재능과 학식이 없으면 비록 정승 판서의 자식이라도 낮은 위치에 있게 됨을 조금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¹²⁾

이러한 인식은 이덕무(李德懋:1741-1793)의 『사소절(士小節)』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다. 사소절은 남자 성인을 위한 사전편, 여성을 위한 부의편, 아동을 위한 동규편으로 구성된 교육서로, 아동을 위한 별도의 장이 구성된 것은 교육학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점이다. 즉 아동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조선후기의 사회 계몽적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책에는 아동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서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함을 언급하는 등 실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존중사상이 아동에게까지 확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론

千字文과小學으로 대변되던 조선시대의 초학 교재는 그 효용성에 대

12) 洪大容, 『澹軒書』補遺, 「林下經論」, “有才有學則農賈之子 坐於廊廟而不以爲僭, 無才無學則公卿之子 歸於與而不以爲恨”

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오다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매우 방대하면서도 다양한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는 실제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용하였던 실학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의 교류를 통해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인식할 수 있었고, 기존의 성리학적 틀에 얽매인 초학 교재를 과감히 벗어나서 새로운 형식과 내용, 그리고 민족적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소재를 통해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켰다.

또한 중인 지식인층은 자신들의 신분적인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감과 존중감으로 교육 분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움직임 속에 19세기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부하고 다양한 초학 교재의 출현을 맞볼 수 있었는데 기존의 천자문류, 소학류 일변에서 벗어나 백과사전이나 유서(類書)의 성격을 띤 교재도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19세기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실학자들은 당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고 있었다. 중국에서 유행하던 책의 목록을 학자들의 개인 서가에서 접할 수 있었을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세기 초학교재가 다변화된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 일변도의 내용과 체제, 형식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용한 것이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새로운 형식의 교재를 원용한 면도 없지 않았다. 19세기에 간행된 초학교재 중에는 백과사전적인 형식을 취한 교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 유입된 『初學記』, 『蒙求集註』, 『幼學故事瓊林』 등은 꾸준히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白眉故事』와 같은 일부 유서들은 조선시대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식적인 부분을 원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전적인 수용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그 내용 역시 우리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어 자칫 초학자들이 중화사상으로 이끌리는 것을 방지하며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교육의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던 아동이 피교육자로서의 신분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세기 일제에 의한 개화 과정에서 교육적인 변화를 겪게 되지만 그 이전에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가며 교육의 혁신과 아동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였던 자주적인 움직임이 한 시대 이전에 있었음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參考 文獻>

『小學』

張 混, 『兒戲原覽』.

丁若鏞, 『興猶堂全書』.

崔世珍, 『訓蒙字會引』,

洪大容, 『湛軒書』.

구회진, 「19세기 중반 유자들의 보통교육론과 동몽서 편찬」, 『역사교육』 92, 歷史教育研究會, 2004.

김영옥·백혜리, 「조선 시대 아동 양육 방법에 관한 문헌적 탐구」, 『유아교육학론집』 제4권 제1호, 중앙유아교육학회, 2000.

김왕규, 「조선시대 동몽교재 연구」, 『한자한문교육』 제4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998.

김종운, 「朝鮮朝 蒙學 教材 연구」, 한국교원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류점숙, 「조선 시대 동몽 교육의 방법적 원리」, 『아동학회지』 제13권2호, 한국아동학회, 1992.

백혜리,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 교육과학사, 2008.

成始烈, 「조선후기 실학파의 교육개혁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심경호, 「전근대 시기의 아동관과 아동의 문학」, 『창비어린이』 5, 창작과비평사, 2007.
- 안경식, 『한국 전통 아동교육사상』, 학지사, 2005.
- 안미경, 『千字文 刊印本 研究』, 이회, 2005.
- 우용제, 『조선후기 교육개혁론 연구』, 교육과학사, 1999.
- 이희재, 「조선시대 유교의 童蒙 교육」, 『공자학』 제16집, 한국공자학회, 2009.
- 정낙찬·이동기·채취균, 『한국의 전통교육』,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 조남욱, 「조선시대 청소년 교육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연구』 제30집, 한국유교학회, 2007.
- 최용준, 「張混의 教育活動과 初學教材의 特性」, 안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崔 桓, 「中·韓 初學者 學習用 類書 小考」, 『동아인문학』 제10집, 동아인문학회, 2006.
- 홍신기, 「「아학편」에 나타난 아동을 위한 문자교육관과 아동용 문자교육 교재로서의 시사점 탐색」, 『韓國教育論壇』 제8권 제2호, 2009.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Views on Child Education in Nineteenth
Elementary Teaching Materials / Choi Jong Chan**

Neo-confucianism, which was introduced toward the end of coryo Dynasty, was adopt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social unity in the period of forming a new national system, and made a great achievement due to its wholehearted acceptance by the ruling class.

Since then, Neo-confucianism influence every aspect of the Chosun Dynasty such as policy, culture, and diplomacy. The social order promoted by Neo-confucianism provided a consistent philosophical standard in education.

Chosun society made a great effort to educate children who were possibly to develop their families and society. An educational system established by a long-term plan was devised to deal with this highly delicate and close process.

The contents of the book used for child education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mainly included ancestor's writings which might improve the concept of Neo-confucianism in the child's thinking and world view. This characteristic probably came about because they did not put a child in the center of family.

From the nineteenth century, there was a wind of change in education in the frame of Neo-confucianism. A series of attempt commonly called Korean Practical Science criticized the contradictions and irrationality of the existing social system, and suggested a new paradigm by focusing on the social and economic field. Education also became the target of change following the change in the social atmosphere.

* Yongin Baekhyeon Middle School, Teacher / ebe8769@hanmail.net

The elementary textbooks in the Chosun Dynasty brought out massive and various output in nineteenth century. The Practical Scientists were able to perceive what was necessar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and therefore, they brought about an educational revolution by introducing brand-new forms, contents and topics awakening national pride. The arise of Neo-confucianism was broken by the introduction of new textbooks.

Most of all,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he independent movement in the previous era which made a lot of efforts for the educational renovation and the positive development of children.

【Key words】 Elementary textbooks, Neo-confucianism, Korean practical science

투고일 : 5월 11일, 심사일 : 5월 23일, 게재확정일 : 6월 7일